

광주 살이? 이 앱 들어봤어?
 맛집·여행·쇼핑·공공기관·이벤트·기타·편의성
잇임으로 맛집 추천, 쿠팡으로 혜택받자!
 모두의 쿠팡, 잇삼

광남일보

쾌적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DK 다케이 주식회사
 제조 및 A/S 문의 1544-1154
 공기청정기 | 공기정화기 | 공기순환기 | 에어컨 | 전자기파도 | 공기정화기

주간 제7816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음력 3월 6일)



꽃 피는 봄 힐링 해 봄

꽃샘 추위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4월. 이 기간에는 다양한 봄꽃들이 피어나면서 전남 곳곳이 각양각색의 꽃으로 물든다. 사진은 완도 청산도의 유채꽃밭.

꽃샘 추위가 지나가고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4월. 이 기간에는 다양한 봄꽃들이 피어나면서 전남 곳곳이 각양각색의 꽃으로 물든다. 여기에 맞춰 각 지자체에서는 꽃을 주제로 한 다양한 축제들을 선보인다. 전남에서는 유채꽃밭을 거닐며 밤하늘의 별을 만끽할 수 있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부터 신안 섬 수선화 축제, 목포 유달산 봄 축제 등 다채로운 축제가 마련된다. 4월 초 봄꽃 향기가 물씬 풍기는 전남 곳곳을 소개한다.

'완도 청산도슬로걷기 축제'

5일부터 한 달 간 완도서 개최
3가지 테마 프로그램 등 다채

△유채꽃밭 걸으며 '슬로라이프'를 노란 유채꽃밭과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힐링할 수 있는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한 달 간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청산도에서 낮밤 없이 돌아보세!'라는 주제로 '걸어보세', '낮밤 돌아보세', '기록하세' 등 3가지 테마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개막식에서는 유채꽃밭에 나비를 날리는 '나비아, 청산가자'와 함께 농악대·판소리 공연 등이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의 테마 중 하나인 '걸어보세' 프로그램은 청산도 슬로길 11코스 중 4개 코스를 걷고 스탬프를 4개 이상 받으면 선물을 증정하는 '청산도에서 걸으러왔다'와 청산도를 걸으며 수거한 쓰레기를 친환경 키트로 교환해주는 '슬로길 플로깅' 등으로 구성됐다. '낮밤 돌아보세'는 청산도 구들장 논에서 수확한 쌀로 떡을 만들고 나누는 '구들장 논 방앗간', 청산도의 아름다운 경관을 무대로 한 공연 '청산도 유랑단', 관광객과 주민 DJ가 함께하는 '청산도 보이는 라디오', '밤바위 기(氣) 팔찌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준비된다.

신안 '2025 섬 수선화 축제'

13일까지 '수선화 군락지' 선도서
14.5ha 대지에 1000만송이 '활짝'

'기록하세' 프로그램으로는 움직이는 포토존, 청산도 내 숙박 이용 및 특산물 구입 5만원 이상 영수증 인증 시 기념품을 제공하는 '선물 줄게, 영수증 다오', 축제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업로드 하면 기념품을 증정하는 'SNS 인증 이벤트', 1년 뒤 도착하는 느린 엽서 '청산도 달팽이 엽서' 등이 있다.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밤에도 힐링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은하수 명소인 청산도에서 인생 사진을 찍는 '별빛 일 있는 청산도'와 걷기 프로그램인 '청산도 달빛 나이트 워크'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청산도 주민들의 시선으로 담은 청산도 풍경 사진을 전시하는 '청산도 사진관'과 청산도 풍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피크닉 세트도 대여해 준다. 축제에서는 주민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산도 주민 관광청'이 마련되며, 이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프로그램을 안내할 계획이다. △섬에 담긴 수선화 이야기 수선화의 전국 최대 군락지로 손꼽히는 신안군 선도에서는 4월 4~13일 '신안의 봄...수선화 축제'를 주제로 '2025 섬 수선화 축제'가 개최된

목포 '2025 유달산 봄축제'

5일부터 '이순신 지혜...' 주제
만호수군 퍼레이드·토크 콘서트

다. 신안 선도가 수선화의 섬으로 조성된 계기는 '수선화의 여인'으로 불리는 한 여인 때문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한 할머니가 30년 전 선도에 정착해 집 주변을 하나둘 수선화를 심었고, 집 주변을 온통 수선화로 물들였다. 이후 신안군은 수선화를 심은 할머니의 숭고한 의미를 기리기 위해 '1섬 1정원화' 사업으로 선도를 수선화의 섬으로 정하고, 수선화 정원으로 조성하게 됐다. 올해 축제는 당초 3월 28일부터 4월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수선화의 개화기 지연되면서 축제 일정이 일주일 연기됐다. 축제 기간에는 14.5ha의 대지에 핀 1000만송이의 황금빛 수선화를 관람객을 맞는다. 신안군에서는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 시키기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수선화 트레킹 코스 걷기, 수선화 정원 내 곳곳의 명소를 방문해 스탬프 도장을 찍는 스탬프 투어, 수선화 벽화 찾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즐거움을 선사한다. 색다른 이벤트로 노란색 의상을 착용한 관람객에게는 50% 입장료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신안군

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1004섬 신안상품권'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 군인은 무료로 입장 가능하다. △봄꽃 즐기며 역사탐방 목포에서는 '2025 유달산 봄축제'가 오는 5~6일 이틀간 '이순신의 지혜, 노적봉의 승리!'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올해 축제의 핵심 콘텐트는 '만호수군 출정 퍼레이드'와 '봄꽃 토크 콘서트'다. 특히 만호수군 퍼레이드는 올해 스토리텔링형 퍼포먼스를 결합해 한층 더 현장감 있게 펼쳐진다. 왜적의 침입과 농민군의 합류 등 실감 나는 장면들이 펼쳐지며, 기존 퍼레이드와 차별화된 연출로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한다. 퍼레이드에는 생활대중극 퍼레이드단, 동 대표단, 해양대학교, 목포시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모두가 함께 만드는 역사 축제로 꾸며질 예정이다. 또한 4·8만세운동 재현 행사는 기존 식전 행사에서 벗어나 퍼레이드 직후 자연스럽게 진행되며, 더욱 몰입도 높은 구성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봄꽃 토크 콘서트는 첫째 날 조지와 키썬이, 둘째 날 정다경, 최수호, 서지오, 이소나가 무대에 올라 유달산의 아름다운 봄꽃과 함께 관람객들에게 도심 속 힐링의 시간을 선사한다. 올해 축제에서는 음식부스와 푸드트럭 규모가 대폭 확대되며, 원도심 힐인 이벤트도 마련된다. 이 밖에도 유달산 플라워&엔블러드 경연대회, 노적봉 만들기, 조선 수군 병영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형 콘텐트도 준비된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관광객들이 완도 청산도 유채꽃밭을 걷고 있다.



신안 선도에 핀 수선화를 배경으로 관광객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청산도를 찾은 가족 단위 방문객.



목포 유달산 봄축제의 만호수군 출정 퍼레이드.